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나이 어린이 (6~9세)

주제 • **목표** :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한글을 만든 이유를 이해한다.
• **주제** : 사랑

핵심어 세종, 한글, 훈민정음, 독서, 책 읽기, 조선, 화폐, 만 원, 왕, 임금님

한국문화 • **목표** :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세종대왕, 한글, 훈민정음

한국어 • **목표** : 반대되는 말을 익혀 표현해 본다.
• **단어** : 쉽다-어렵다, 쉽지 않다-어렵지 않다.
• **표현** : 배우기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배우기 쉬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는 계속 기억하고 싶은 사람을 돈에 그려 넣기도 해요. 여기 우리나라의 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그려진 임금님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바로 세종대왕님이예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님의 커다란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도대체 세종대왕님은 어떤 일을 하셨길래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고 싶어 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아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옛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선에는 책 읽기를 몹시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밥 먹을 때도 책을 펼쳐 보았을 정도지요. 임금님은 책뿐만 아니라 과학과 수학, 음악까지 무척 즐겼어요. 이 임금님은 오늘날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분이예요. 세종대왕님이 어린 왕자였을 때에 이야기예요.

“하늘 천, 땅 지, 검을 현…….”

“아하, 하늘을 뜻하는 글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아이, 재미있네.”

왕자님은 신나게 글자를 배웠어요. 왕자님이 배운 글자는 한자예요. 한자는 아주 오래전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웃 나라들도 한자를 함께 사용했답니다. 그때는 책을 읽으려면 천 개나 되는 한자를 배워야 했어요. 천 개의 한자를 적은 책을 천자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자를 배우는 일은 무척 어려웠어요.

왕자님은 한자를 열심히 배워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왕자님은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같은 책을 백 번이나 읽기도 했지요. 책을 보느라 밖에 나가 놀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아플 때도 책을 읽었지요.

“쿨룩쿨룩! 아유, 머리아. 어질어질하구나. 하지만 어제 읽다 만 책을 읽고 싶어.”



이야기 들려주기

아픈 왕자를 돌보던 신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임금님께 달려가 알렸어요.

“뭐라고! 왕자가 아픈데도 책을 읽고 있다고?”

임금님은 크게 화를 냈어요. 빨리 나으려면 쉬어야 하는데 책만 읽는 왕자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당장 왕자 방에 있는 책을 몽땅 꺼내 오도록 해라!”

신하들은 왕자님 방에 있는 책을 모두 보자기에 싸서 가져가 버렸어요. 병풍 사이에 끼인 편지 책만 빼고 말이지요. 왕자님은 그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적어 보내면 참 편리하지! 그런데 한자는 너무 어려워. 누구나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자로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말과 중국 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농사를 짓느라 바쁜 백성들은 글자를 몰라서 글을 쓸 수 없었어요. 왕자님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글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려웠어요. 임금님이 되기도 계속 연구했어요.

세종대왕님은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새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자를 훈민정음이라 해야겠다.”

세종대왕님은 빙그레 웃었어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이 훈민정음이 바로 우리가 쓰는 한글이에요. 훈민정음은 스물여덟 개 글자로 간단하지만, 모든 것을 쓸 수 있었어요.

“나는 하루아침에 훈민정음을 다 배웠어. 훈민정음은 정말 배우기 쉬운 글자야.”

“우와, 엄청 빨리 배웠구나. 나는 열흘 만에 다 배웠어.”

사람들의 말처럼 훈민정음은 배우기 어렵지 않았어요.

“닭은 ‘꼬끼오’하고 우는데, 이렇게 쓰는 거야!”

“바람은 ‘휙휙’ 부는데, 이렇게 쓰지.”

이처럼 훈민정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세종대왕님 덕분에 글을 익혀 쓸 수 있는 백성들이 나날이 늘어갔지요. 백성들은 책을 읽어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한 것을 글로 적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글을 쓸 때마다 늘 백성을 생각하며 아꼈던 세종대왕님을 떠올렸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종대왕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훈민정음은 어떤 글자인가요? 그래요. 스물여덟 개로 간단하지만, 모든 것을 쓸 수 있었어요. 또 배우기 쉬웠지요.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쉽다’와 ‘어렵다’는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어렵지 않다’처럼 ‘어렵다’에 ‘않다’를 붙여도 반대말이 돼요. 여러분도 가족들과 반대말을 찾아보고 표현해 보아요.

여러분,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나요?

맞아요. 세종대왕님이예요. 훈민정음은 모든 말을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날은 바로 10월 9일이에요. 훈민정음은 오늘날 한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0월 9일을 한글날이라고 해요. 한글날에는 태극기를 달아서 기념해요. 세종대왕님과 훈민정음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세종대왕님은 백성이 글자를 모르면 억울하거나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드셨어요. 백성을 생각하는 세종대왕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세종대왕님이 만든 소중한 한글로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사랑이 담긴 편지를 건네며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